데스크시각

김주정

장흥의 역습

나체 산림욕을 許하다

SBS 주말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가 인기다. 이혼과 재혼, 불륜과 동성애라는 금기어들이 4대가 모여 사는 가족사에 버무려져 극이 전개되는데도 따뜻하고 잔잔하게 가슴을 친다. 평생을 작은댁에서 살다가 다 늙어 돌아온 할아버지를 받아들이는 할머니, 동성애자임을 고백하는 장남에게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며 함께 우는 계모는 현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인물상은 아니다.

어떤 사회가 정해놓은 금기를 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종족 보전이나 도덕률 준수처럼 한 사회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금기에 이르면 더욱 그렇다. 이슬람 여성들은 '히잡'을 쓰지 않는 것만으로도 쫓겨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가 흔하다.

인류는 금기 깨기를 계속해 왔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그 최초다. 이들은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순진무구한 동물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인간으로 발전했다. 금기 깨기는 세월이 흐르면서 집단화하는 경향도 발견된다. 장흥군의 사례를 보자.

장흥은 군 단위에선 유일하게 유림회관이 있고, 향교도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는 고장이다. 필명을 날리는 점잖은 문인들을 다수 배출한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문향(文鄕)이기도 하다.

이런 장흥이 요즘 나체촌 건설 문제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이명흠 장흥군수가 앞장서 향교와 유림회관을 지척에 둔 억불산 자락 편백나무 숲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풍욕(風浴)을 즐기면서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는 나체산림욕장을 다음달 중순 개장하겠다고 하면서다.

언론 보도에 따른 반응은 폭발적이다.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다. 움막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꼭 가봐야 할 명소가 생길 것 같아 반갑다. 휴가는 장흥에서 보내겠다"는 댓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기왕 하려면 잘해보라"는 나이 든 주민들도 많다고 한다. 이 정도면 '장흥의 역습'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나체촌 만들기는 끊이지 않고 시도됐던 지자체들의 과제다. 이미 제주도와 강원도 고성, 강릉이 누드비치를 만들려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장흥 나체촌'을 이토록 응원하게 하는 걸까. 왜 장흥은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되는 '터부'에 도전하는가.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장흥은 먹고 살만한 것이 많지 않다. 가난한 전라도의 그저 그런 농촌 가운데서도 별 볼일 없는 동네다. 전남 동부권이 산업중심으로, 서남권이 레저 관광 교역중심으로 꿈을 키우는 동안 소위 중남권에 속하는 장흥은 그 흔한 물을 축제의 이벤트로 삼아야 할 만큼 환경이 열악하다. 이는 금기를 깨서라도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발현됐다.

도전은 아름답다

최소한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안팎의 치유본능도 더해졌다. 피톤치드가 풍부한 편백나무 숲을 무료로 이용해보라는 권유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소식이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눈 뜨고 못 보겠다"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전국 초중생 762만명 중 43만명이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나체촌 만들기는 도전이다. 아담과 이브가 낙원 추방이라는 혹독한 값을 치렀듯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할지 모른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은 아름답다. 답답한 현실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떠나는, 살아있음의 표현이니까.

〈여론매체부장〉 jjnews@kwangju.co.kr

사설

지자체 선심성 행사 축소·폐지 바람직하다

마침내 광주시를 비롯한 일선 지자체들이 단체장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돼온 각종 축제와 행사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재정난 속에서도 실속없는 축제와 행사의 중복 개최는 그동안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지적됐던 게 사실이다.

광주시는 오는 10월23일부터 27일까지 서구 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17회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의 규모를 축소하기로 하고, 사업비를 당초 21억원에서 23% 줄인 16억2500만원만 책정했다고 한다. 남구청은 올해 1억9천만원을 들여 다음달 중 대촌동 일원에서 개최하려던 '제3회 효사랑녹색산업전'을 아예 취소했다.

함평군은 9일 '2013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예산 규모를 198억원에서 120~130억원으로 축소해 치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축소를 조건으로 예산 지원을 승인한데다 재정상 전체 투자비의 40%를 군비로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곡성군도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해온 토요장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선 자치단체들이 이같이 각종 이벤트를 축소하거나 폐지한 것은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를 줄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사실 광주시와 전남도내 각 자치구 가운데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광주 동구와 남구, 곡성·구례·함평군 등 14곳에 달한다. 그럼에도 각 자치구는 경쟁적으로 전시성 행사나 축제를 열어 재정에 더욱 부담을 안겨왔다.

한편으로 행사와 축제가 나름의 성과가 있음에도 전임자에 대한 차별화 차원에서 폐지되는 것은 옳지 않다. 과거 새 단체장이 입성하면 제일 먼저 정리했던 게 전임자가 만든 행사가 아니었던가. 그야말로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광주·전남 시내버스는 안전에 문제 없는가

서울 도심을 달리던 압축천연가스(CNG) 버스가 갑자기 폭발해 20대 여성 승객이 양쪽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는 등 17명이 다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평소 안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은 시내버스가 졸지에 폭발했다고 하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꼴이다.

CNG 버스의 폭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는 전북 익산의 한 충전소에서 충전 중이던 시내버스의 CNG 용기가 폭발하는 등 지금까지 전국에서 7건이나 있었다. 그럼에도 당국은 그동안 CNG 버스 안전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번 사고가 제대로 대책을 마련치 않아 빚어진 '예견된 참사'인 셈이다.

문제는 서울 CNG 버스 폭발사고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는 점이다. 광주시의 경우 시내버스 952대 중 CNG 시내버스는 926대(97.3%)에 달한다. 광주시내를 달리는 대부분의 시내버스가 CNG 버스인 것이다. 전남지역도 목포, 여수, 순천, 광양 등 4개 시에서 515대가 운행 중이다. 이번 사고를 떠올리면 위험한 가스통을 8개나 매단 CNG 버스가 광주와 전남 4개 시의 도로를 점령한 채 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당장 시민들은 달리거나 서 있는 버스가 서울 폭발사고처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게 됐다.

광주·전남에서도 시내버스 폭발사고가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특히 CNG 버스가 등장한 후 비슷한 사고가 전국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CNG 버스에 대한 안전점검과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가장 편리한 대중교통 중 하나로 '시민의 발'로도 불리는 시내버스를 타면서 좌불안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CNG 버스의 가스 용기 안전성은 물론 안전 점검의 문제, 버스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은펜칼럼

이병우

골프와 PR의 7가지 공통점

골프 연습을 하다가 문득 릴리스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골프 스윙은 꼬임과 풀림을 기본으로 한다. 프로선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근력이나 헤드스피드보다 꼬임이나 풀림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릴리스는 골프뿐만 아니라 PR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뉴스 가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제때 알리는 것이 News Release이다. 그렇다면 다른 공통 요소는 없을까? 생각해보니 골프와 PR에 공통점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세상은 다 연결돼 있다고 하지 않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통점 7가지를 꼽아 봤다.

첫째, 잘 띄워야 한다. 필드에 처음 나갈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과연 공이 떠서 똑바로 나갈까 하는 것이었다. PR도 마찬가지다. 언론에 잘 띄워야 한다. 아무리 기획을 잘해도 보도가 안되면 공염불이다.

둘째, Release를 잘 해야 한다. 골프 스윙은 꼬임과 릴리스에 의해 결정된다. 파워는 거기서 나온다. PR에서도 뉴스 릴리스가 중요하다. 뉴스 릴리스란 PR을 목적으로 기업이나 조직의 정보를 보도기관에게 배포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PR 활동에 있어서 기본이다.

셋째, 결과는 적는 대로 나온다. 흔히 "골프 점수는 치는 대로 나올까, 적는 대로 나올까"하는 말이 있다. 답은 '적는 대로 나온다'는 것이다. 첫 홀 '일파만파'는 그 한 예라고나 할까. PR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자료를 잘 보내도 일선 기자가 작성한 대로 보도된다. 기록된 현실이 사실보다 중요할 때가 많다.

넷째, 위기 관리가 중요하다. 골프 18홀 중 몇 번의 위기는 있게 마련이다. 실력의 차이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PR에서 위기 관리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수년간 쌓아올린 기업명성을 한순간에 날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파트너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골프는 좋은 친구와 같이 할 때 최고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PR에서는 카운터 파트너를 잘 만나야 한다.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는 현격하게 달라진다.

여섯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아무리 프로골퍼라고 해도 악천후에서는 자기 실력을 100% 발휘하기 어렵다. 코스나 잔디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 PR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큰 사건이 나거나 대형 이슈가 터졌을 때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된다. 외부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일곱째, 멘탈 게임이다. 실질적으로 신체적, 기술적으로 비슷한 경우에서는 경기 결과를 좌우하는 것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정신력이다. PR도 골프 못지않은 멘탈 게임이다. 관계와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없으면 제대로 활동하기 어렵다. 그리고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을 때,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상 일곱 가지 공통점을 얘기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매번 계획했던 방향대로 볼이 가는 것이 아니며, 원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난데없는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난관을 극복하는 데에 골프가 매력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점이 골프와 PR의 매력, 아니 우리 인생의 매력이 아니겠는가.

〈보해양조 이사〉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정진화

유쾌한 휴가길은 안전운전에서

차량운행이 많은 휴가철이다. 무더위를 피해 남도의 계곡과 바다로 향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무척 가벼워 보인다. 하지만, 휴가길 고속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경우 상당수가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한다. 일부에선 졸음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졸음을 억제하기보다는 휴게소와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30분 정도 토막잠을 청한 후 운행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다.

차량이 고장 나거나 운전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워놓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후속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비상주차할 경우 차량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고 차량에서 빠져나와 안전한 곳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호남지역본부 대표전화 : 062-570-7114)

타이어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도 많아 주의해야 한다. 먼길을 떠날 때는 타이어 마모상태와 공기압을 반드시 점검한 뒤 출발해야 한다. 타이어의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교체한 뒤 출발하는 것이 안전운행의 기본이다. 또 공기압이 낮으면 타이어와 도로가 닿는 면적이 넓어져 마찰열이 상승해 타이어가 파손될 수 있다. 적정수준보다 낮은 경우 공기압을 높여 사고발생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월별 교통사고 발생비율을 살펴보면 1년 중 6월~8월에 가장 빈번하고 8월에 그 비율이 가장 높다. 따라서 휴가철인 지금이 가장 조심해야할 시기다.

이번 휴가철에도 한국도로공사는 "빠른 길, 편한 길, 안전한 길"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우선 '빠른 길'을 위해 고속도로 각 노선별 교통상황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로드플러스(http : //roadplus.co.kr)에서는 실시간으로 교통속보, 정체구간,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영상을, 휴대전화로는 교통속보 및 소요시간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속도로 교통 소통상황을 미리 확인 후에 출발한다면 혼잡구간을 피해 빠른 길을 이용할 수 있다.

'편한 길'은 통행료 지불방법 및 수단의 선진화를 통해 구현된다.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의 초석이 되는 '무정차 요금지불 시스템'인 하이패스는 2007년 말 전국 개통 이후 현재 약 45%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용고객들은 시간절약, 연료절감, 통행료 할인의 세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진출입 나들목 지·정체 해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하이패스차로뿐만 아니라 일반 차로에서도 사용가능한 후불 하이패스카드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일일이 충전을 할 필요가 없고 무엇보다 통행료를 할인받게 되며 신용카드 회사별로 마일리지 혜택도 누릴 수 있어 여러모로 이득이다. 광주 외곽순환도로까지 연결된다면 고객 서비스는 더욱 향상될 것이다.

'안전한 길'은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유형별, 기간별, 시간별로 분석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이행함으로써 실현되고 있다.

안전운행 수칙을 잘 지키고 교통정보를 미리미리 확인한다면 더욱 즐겁고 유쾌한 휴가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국도로공사 함평지사장〉

無等鼓

쾌도난마

동양과 서양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어딘가 비슷한' 사례들이 많다.

서기 5세기경 동위(東魏)의 효정제(孝靜帝) 때 승상으로 있던 고환(高歡)이 여러 아들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어지럽게 헝클어진 실타래를 하나씩 나누어 주고는 잘 풀어 보라고 주문했다. 다른 형제들은 뒤엉킨 실을 풀어내 한 가닥으로 추리느라 분주했지만, 유독 둘째 아들인 고양(高洋)은 '어지러운 것은 베어 버려야 한다'며 칼을 뽑아 단번에 실타래를 잘라 버렸다. 고양은 나중에 효정제를 몰아내고 북제를 세워 즉위한다. '쾌도난마'라는 고사성어의 유래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기원전 334년, 동방 원정길에 오른 알렉산더는 소아시아를 정복한 뒤 '고르디우스'라는 도시를 찾는다. 이 도시의 제우스 신전에는 누구도 풀지 못하는 매듭으로 묶여있는 전차가 있는데,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된다는 전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신전에서 전차를 살펴보던 알렉산더는 단칼에 매듭을 잘라버린다.

'쾌도난마'와 '고르디우스의 매듭' 은 서로 다른 공간과 시간에서 빚어진 이야기지만, 후세에는 둘 다 '복잡하게 얽혀 풀기 어려운 사안을 과감하고 명쾌하게 처리하는 것'을 뜻하는 비유로 사용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과 상무소각장, 광주공항 등 수년을 끌어온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해 취임 한달 여 만에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선 데 대해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원화한 사회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해답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쾌도난마'식 일처리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행정의 달인'으로 불려 온 강 시장이, 오랜 행정경험과 고민을 통해 우러나온 통찰력을 광주발전을 위해 발휘해주길 기대한다. /홍행기 정경부차장 redplane@

공무원 사칭 농민 등치는 사기 기승… 주의 필요

작년 요맘때 고향에서 일어난 사기사건이 하나 있다. 어르신들이 마을 회관에서 쉬고 있는데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방문했다. 그 사람은 군청 복지과에서 파견 나온 사회 복지사라고 소개했고 마을 할머니들에게 기(氣) 치료를 해드리러 왔다며 서글서글한 웃음을 지었다.

한참 어깨를 주무르던 그는 할머니들에게 액체 약품을 보여주며 "금반지를 깨끗이 씻어주겠다."고 했고, 할머니 세분은 의심 없이 반지를 빼줬다. 그러고는 "손을 깨끗이 씻고 오겠다."며 금반지를 들고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요즘도 산림보호원이나 산림청에서 나왔다며 농촌을 돌아다니는 사기꾼들이 많다고 한다. 또는 면사무소 직원인데 생계보조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조사하러 왔다고 속이고 대문을 열게 한 뒤 강도로 돌변하는 사례 등이 있다. 이런 공무원 사칭이 판을 치고 있으므로 농촌에서는 반드시 신분을 확인하거나 연락처를 받아두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성준·광주시 서구 화정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